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의 여성을 중심으로-

변금선⁺

(서울대학교)

허용창⁺⁺

(서울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티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에 의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 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

+ 주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heoyc1@gmail.com)

1. 서론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정책은 정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사회정책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의 관습을 창출함으로써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Ringen, 2007). 본 연구는 이런 사회정책의 양면적인 특성 중에서 사회정책이 가족을 이룬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즉 가족 내에서 존재하던 여성의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사회정책 변화와 그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복지국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초창기에는 '가족주의(familiarism)'에 근거하여 근대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정책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로서의 남성과 전업주부로서의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개념을 토대로 전개되었다(Esping-Andersen, 2009). 그러나 경제발전예 따른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남녀 간의 젠더관계도 변하면서 복지국가 성립 이후 줄곧 전제되었던 가족 모델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젠더관계의 변화는 남성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에서 성인부양자모델(adult worker model)로의 전환을 촉진하였고, 이제 사회는 가족 틀 밖에서 남녀 노동의 공평성을 추구하게 되었다(Ringen, 2007). 그 과정에서 성인부양자 모델의 관점에서 돌봄을 공적영역에서 상품화시킴으로써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돌봄의 탈가족화'가 사회정책의 주요한 전략으로 강조되었다(Giullari and Lewis, 2005). 그러나 여전히 남성부양자모델을 탈피하지 못한 채 돌봄의 의무를 여성이 과도하게 떠맡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돌봄의 탈가족화'를 지향하는 경우에도 국가별로 독특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돌봄의 탈가족화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사회경제 발전의 결과로 인해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급속한 속도로 정책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반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출산 및 돌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전환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2000년대 이후 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했는데, 보육지원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보육지원정책은 정부가 2004년 6월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1차 육아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¹⁾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던 아동에 대한 '돌봄' 의무를 국가가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인 보육료 지원의 확대가 정책의 주된 수혜 집단인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 집단과 그 외 여성 집단의 차이를 정책시행 전후 시점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9

1) 본 연구에서는 '보육지원'을 탈가족화 전략(또는 돌봄의 사회화)이라는 관점에서 자녀양육의 역할을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미취학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서비스로 정의한다.

년까지 보육료 지원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집단인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계층의 여성이 정책 변화에 따라 어떻게 노동과 돌봄, 가사, 여가를 포함하는 자신의 미시적 삶을 재구조화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한국의 보육정책 변화

여성의 시간배분과 관련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다수의 연구는 Becker(1965)의 효용극대화를 지향하는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에 관한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Becker(1965)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개인이 처한 소득제약과 시간 제약 하에서 자신의 선호와 각 활동의 비용을 고려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 시각에 기반을 둔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이 배우자와의 관계(배우자의 소득 등)를 고려하여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측면에 주목한다(서병선·임찬영, 1994; 황수경, 2003; 김대일, 2008; 이상 윤자영, 2010 재인용). 이 외에도 일부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와 임금 간의 상대적 가격 변화에 따른 여성의 노동 공급 결정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에 비해 보육서비스에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하면 여성은 노동공급에 비해 비시장시간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보육서비스에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여성은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비시장시간을 감소시키는 결정을 내린다(윤자영, 2010). 이처럼 Becker의 이론을 토대로 기혼 여성의 시간배분을 분석한 연구는 대개 남성 배우자의 소득이나, 보육서비스와 여성이 받는 임금과의 상대 가격 차이에 의한 노동공급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한편 개인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서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효용극대화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기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기혼 여성의 시간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일단 과거에 비해서는 기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가정에서 기혼 여성의 역할 변화가 확인된다(Gershuny and Sullivan, 1998). 국내에서도 지난 10년간 여성의 이중노동부담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진옥·최영준, 2012).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관한 사회규범의 변화는 기혼 여성의 유급노동 및 무급노동에 대한 시간배분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다른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보육정책의 도입(혹은 확대)이라는 변수이다. Ringen(2007)이 강조한 것처럼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정책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의 관습을 창출함으로써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거시적으로는 사회정책의 양면적 성격은 주요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와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쳐 복지를 둘러싼 정치

적 선호와 구조를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미시적으로는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급여수준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개인별로 내리는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보육정책의 도입(혹은 확대)은 출산에서부터 자녀양육에 이르는 결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중단이나 재개와 같은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효용극대화 원칙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 및 공공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개인의 시간배분이 결정된다는 통합적 시각을 전제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여가를 모두 포괄한 접근이 필요하다(Gauthier and Smeeding, 2003).

본 연구는 이러한 포괄적 시각을 토대로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있어서 보육정책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최근 보육료 지원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보육정책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이전(2004년)과 이후(2009년)의 정책 변화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2003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본격적인 변화는 2004년 이후 시작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취약가정의 미취학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4년 법 개정으로 제도의 수혜대상이 확대되어 선별적 제도에서 보편적 제도로의 형식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2004년 이후 수혜대상의 소득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예산도 확대되면서 보편적 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표 1>은 2004년과 2009년의 보육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²⁾ 가장 큰 변화는 제도의 목적이 보육지원의 대상을 근로나 질병 등으로 인해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보육지원에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육지원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보육료 지원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집단은 차상위계층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70%이하, 소득하위 50%(2009년 4인가구 기준 월 258만원)의 집단이다.³⁾

보육료 지원 수준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이다. 재정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보육지원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Kreyenfeld and Hank, 2000). 보육지원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수는 2004년 26,903개에서 2009년 35,550개로 30% 이상 증가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는 아동의 규모는 전체 영유아의 4.8%를 보육하는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아동에게 입소우선

2)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에서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5년 주기)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2009년도 자료를 분석하게 되어 2004년도와 2009년도 보육지원정책 변화에 주목하였다.

3) 2009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의 0-1세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 이는 가정보육을 전제로 지원되므로 보육지원이 여성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편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생활시간조사는 양육수당도입 이전인 3월과 이후인 9월 두 번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점,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이 선호되는 영아가 표적집단인 점, 2009년 양육수당 지급자는 6만 9천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009년도의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 편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을 주었던 것에서 차상위계층 가구와 맞벌이 가구 아동에게도 입소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에 한정되어 있고, 입소신청 현재 기준 취업 자료를 요구하므로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규취업과 취업유지 증대를 통해 나타난다. 신규로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 어린이집 신청 현재 취업한 상태가 아니므로 어린이집 입소우선권을 얻지 못하여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한 취업증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며, 취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일부 여성에 국한되어 있어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한 취업유지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⁴⁾

〈표 1〉 보육료 지원제도의 변화

구분	2004년	2009년
대상 및 지원수준 (보육료)	최저생계비 미만: 100% 지원 차상위계층: 60%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50% : 40% 지원	상반기 최저생계비 미만: 100% 지원 차상위계층 : 100%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80%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60%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30%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 4인가구 소득 398만원 하반기 소득하위 50%: 100% 지원(4인, 월 258만원) 소득하위 60%: 60% 지원 소득하위 70%: 30%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4인가구 소득 436만원
보육료지원 예산 (중앙정부)	1,524억원	1조2,822억원
보육료 지원 수급아동	보육시설이용 아동 : 93만명 (5세 이하 영유아 중 27.9%) 보육지원 수급 아동 : 25만명 (5세 이하 영유아 중 7.5%)	보육시설이용 아동 : 117.5만명 (5세 이하 영유아 중 43.7%) 보육지원 수급 아동 : 79만5천명 (5세 이하 영유아 중 29.5%)

자료 : 보건복지부 2004 보육통계, 2004 보육사업안내, 2009 보육통계, 2009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주 : 유치원 이용아동 수는 2004년 541,713명에서 2009년 537,361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4) 2009년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은 34,898명, 출산후휴가를 이용한 여성은 70,560명으로(도남희, 2013: 5), 2009년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8.1%, 16.4%에 불과하다.

2) 보육정책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실증연구

보육정책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Becker의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보육서비스의 가격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와 정책효과의 측면에서 보육정책의 도입이나 확대가 기혼 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보육서비스의 가격(비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비용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높은 보육비용으로 설명한다(Heckman, 1974; Blau and Robinson, 1988; Connelly, 1992; OECD, 2011). 나아가 보육서비스 가격과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여성이 보육비용과 서비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보육시간이 증가했다(Hill and Stafford, 1974; Michalopoulos et al., 1992; Anderson and Levine, 1999; Baum, 2002; Guryan et al., 2008). 보육서비스 비용이 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외국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윤자영(2010)은 1999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해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기회비용을 보육서비스가격과 임금률을 반영해 탄력성을 추정하여 시간당 보육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 자녀를 둔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 가사노동,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으며, 보육서비스가격에 대한 각 시간배분의 탄력성이 학력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윤자영(2010)의 연구는 국내에서 보육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의 자료를 이용해 시장에서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가격(비용)이 기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가 기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친 실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보육지원과 관련된 정책변화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정책 도입 이후 기혼 여성이 유급노동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을 재배분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즉 보육정책의 목표를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두고 제도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거나, 보육과 관련된 사회지출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Connelly, 1992; Grustasson and Stafford, 1992; Baker et al., 2005; Lefebvre and Merrigan, 2008; Lippe et al., 2011). 이들 연구의 일관된 결론은 보육지원의 확대가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육지원 도입 혹은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주보혜(2010)는 2003년과 2007년의 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저소득(가구주가 저교육인)가구 여성에게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호·홍석철(2013)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보육료 지원의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보육료 지원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에

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현재은·권혁주(2013)의 연구에서는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유료 보육서비스 이용이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유료 보육서비스 이용은 돌봄시간 증가와 유급노동시간 감소 경향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실증자료를 이용해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혹은 보육서비스 이용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분석의 대상, 자료 및 측정 등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다. 먼저 분석대상에 있어서 주보혜(2010), 김정호·홍석철(2013)의 연구는 기혼 여성의 여러 활동 중 유급노동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주보혜(2010)의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모집단 대표성이 떨어진다.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측면에서도 주보혜(2010)의 연구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층 중심의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보육지원이 이루어지던 시기만을 분석하여 보육지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의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김정호·홍석철(2013)은 2009년 횡단자료만을 활용하여 보육지원 여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보육지원이 확대되기 이전과 이후 여성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은·권혁주(2013)의 연구는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여 보육지원 확대의 영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으나, 유료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돌봄시간의 변화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보육료 지원 확대의 전반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육지원 제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육지원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는 보육지원 확대 정책의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노동이나 돌봄 중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지원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총체적인 시간배분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단위 횡단면 자료인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한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 방법을 활용해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를 둔 중하위 소득가구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보육료 지원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집단은 차상위계층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70% 이하, 소득하위 50% 계층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집단은 미취학자녀를 둔 중하위소득 가구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만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으로 연령을 제한하였으며, 비교집단을 설정하기 위해

이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분석자료는 노동시간, 보육시간, 여가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기혼 여성의 실제 시간사용의 변화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에 의존하거나, 모집단 대표성이 낮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시간배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각 시점에서 대상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반복횡단(repeated cross section)자료인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time-diary)에 응답자가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after-coded diary)으로 1999년부터 5년마다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 2009년의 생활시간자료 중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2004년 18,702개, 2009년 10,924개로 총 29,626개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기 전 시기인 2004년과 정책의 수혜대상 및 급여수준이 확대된 2009년 사이에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삼중차이 추정(Triple difference approach,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 DDD)을 이용해 확인한다. 삼중차이 추정은 보육료 지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control group)을 설정하여 보육료지원에 따른 생활시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추정법이다. 삼중차이 추정을 통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별로 제도시행 전후 차이의 차이를 비교하여 각 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육지원 확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Schöne, 2004).

하지만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생활시간의 차이가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삼중차이 추정에서 확인된 차이가 보육료 지원 확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여성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토빗회귀분석은 0의 값이 많은 시간일지와 같은 절단자료(censored data)에 활용되는 분석방법으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이용해 특정 값에서 절단된 사례로 인한 편의를 조정한다.⁵⁾ 그런데 본 연

5) 시간일지(time use diary)에 0값이 많은 것은 일상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당일에만 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시간일지의 0값을 절단된 값이 아니라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로 간주하여 OLS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Stewart, 2013). 하지만 여성의 경우,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측정오류로 인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토빗회귀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Foster and Kalenskosi, 2013). 한편, 절단값의 사례 수가 적은 행위의 시간에 대해서는 OLS를 적용하기도 하는데(Kimmel and Connelly, 2007). 토빗회귀분석이 절단값(여기서는 0)에 해당하는 사례의 수가 0에 가까울수록 OLS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으므로(박미희·변금선, 2013), 추정과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토빗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구의 종속변수인 생활시간은 행위별 생활시간이 동일 사례의 24시간에서 파생된 값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회귀분석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즉 토빗회귀분석을 이용해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각각 분석하게 되면 각 모형의 오차항간 상관관계로 인해 가설검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차항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SUR 토빗분석(Seemingly Unrelated 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⁶⁾ 삼중차이 추정을 적용한 토빗회귀분석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보육지원 확대의 영향은 제도 확대 이전과 이후의 시기더미 변수와 보육지원 확대의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을 구분하는 집단 더미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β_4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θ 는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γ 는 2004년과 2009년의 차이를 나타낸다. δ 는 활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이다.

$$Y_{it}^* = \alpha + \theta Treat1_{it} + \gamma After_{(t=2009)} + \beta Treat1_{it}\chi After_{(t=2009)} + \delta De + \epsilon_{it} \quad (DD)$$

$$Y_{it}^* = \alpha + \theta_1 Treat1_{it} + \theta_2 Treat2_{it} + \gamma After_{(t=2009)} + \beta_1 Treat1_{it}\chi After_{(t=2009)} + \beta_2 Treat2_{it}\chi After_{(t=2009)} + \beta_3 Treat1_{it} \times Treat2_{it} + \beta_4 Treat1_{it}\chi Treat2_{it}\chi After_{(t=2009)} + \delta De + \epsilon_{it} \quad (DDD)$$

$$Y_{it} = \begin{cases} Y_{it}^* & \text{if } Y_{it}^* > 0 \\ 0 & \text{if } Y_{it}^* \leq 0 \end{cases}$$

3) 분석모형

보육료 지원 확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으므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무작위 할당을 전제로 하는 자연실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의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처치집단을 설정하였다. 처치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미취학자녀 유무와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를 사용하였다. 보육료 지원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보조이며, 2009년 보육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원칙에 따라 중하위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⁷⁾⁸⁾

6) SUR 방식을 적용한 토빗분석에 대해서는 Kimmel and Connelly(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7) 보육지원이 가장 크게 확대된 집단은 차상위계층~도시근로자가구 소득 70%미만 및 소득하위 50% 미만 집단이다. 따라서 중하위소득 가구는 차상위계층과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 (2004년 214만원, 2009년 266만원), 소득하위 50%(2004년 221만원, 2009년 258만원)를 포괄하는 '250만원 미만'가구로 정의했다(2009년 보육료 지원 수급 영유아 중 소득하위 50% 미만 영유아는 68.1%로 보육료 지원 총예산의 79.1%가 이들에게 지급). 한편, 생활시간조사는 조사시점 이전 1년간의 월평균개인소득을 서열변수(50만원 단위, 0~10의 값)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가구규모를 고려한 가구균등화 소득을 적용하지 못했다. 또한 생활시간은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역의 인과관계를 피하기 위해 가구소득에서 여성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제외하였다. 소득변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유형을 통제변수로 투입했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1은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보육지원의 영향을 확인한다. 분석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성인여성 전체이며, 처치집단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이다. 처치집단 기준인 미취학자녀 유무와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를 모두 이용한 삼중차이 추정을 통해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을 확인한다. 정책효과는 시기더미, 미취학자녀 유무 더미,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 더미의 상호작용항이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2004년과 2009년 생활시간의 차이가 가구소득 수준별로 다른지를 보여주는 삼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를 의미한다. 모형2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한 삼중차이 모형으로 본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형이다. 기존 연구들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 및 노동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자녀임을 강조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공급과 생활시간 배분은 자녀가 없는 여성과는 이질적인 양상을 보임을 지적한다(황윤재·최강식, 1999; 김순미 외, 2000; 황수경, 2003; 김현숙·원중학, 2004; 윤자영, 2010; Kimmel and Connelly, 2007). 따라서 미취학 혹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을 처치집단으로 하여 삼중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Schöne, 2004: 708). 모형1과 마찬가지로 정책효과는 시기더미, 미취학자녀여부, 중하위소득더미의 상호작용항이다.

〈표 2〉는 토빗회귀분석에 투입한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독립변수는 시기더미, 집단더미,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항이다. 시기는 2004년을 기준으로 2009년인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집단더미 변수는 미취학자녀 여부와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 변수로 구성된다. 미취학자녀 여부 변수는 만5세 이하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의 값을 가지며, 중하위소득 가구 변수는 시간일지 작성 이전 1년간의 평균월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코딩하였다. 종속변수는 생활시간으로, 행위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시장노동이나 시장에서의 구직활동 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시간, 자녀와 부모 등 가족돌봄을 하는 돌봄시간, 식사준비 등 가정관리를 하는 가사시간, 취미생활이나 TV시청 등을 하는 여가시간이다.

통제변수로는 정책 효과 외에 여성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내 지위 등의 변수를 반영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여성의 생애주기(결혼, 출산, 양육)에 따라 M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여성의 생애주기와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연령을 20대(18, 19세 포함), 30대, 40대로 구분한 명목변수로 투입하였다. 교육수준과 관련해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져 돌봄이나 가사노동, 여가 등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시간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Kimmel and Connelly, 2007; Guryan et al., 2008).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배우자 유무와 가구내 지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에 해당한다. 이는 배우

8) 최저생계비 100% 미만 가구(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여성은 2004년과 2009년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변화가 없으므로 처치집단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최저생계비 100% 미만 가구의 여성을 구분할 수 없었다.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여성을 처치집단에서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자가 있는 여성은 2차 소득자(secondary earner)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구원의 수, 미취학자녀의 수도 여성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준다(황운재·최강식, 1999; 김순미 외, 2000; 황수경, 2003; 김현숙·원종학, 2004). 생활시간자료의 경우 자녀의 수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수를 대신하여 미취학자녀의 수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유무(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돌본 시간이 0이 아닌 경우)를 통제변수로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요일, 농가여부, 거주지역, 주거유형 등을 통제하였다. 여기서 주거유형은 가구소득 변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 전세, 월세, 무상주택으로 구분하였다.

〈표 2〉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명	속성 및 단위	
독립 변수	시기더미	2004년=0, 2009년=1	
	집단더미	비교집단=0, 처치집단=1	
		모형1	분석대상: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가임기 여성 미취학자녀 있음=1, 250만원 미만=1
	모형2	분석대상: 미성년자녀가 있는 여성, 미취학자녀 있음=1, 250만원 미만=1	
	상호작용항	시기더미*집단더미, 집단더미1*집단더미2, 집단더미1*집단더미2*시기더미	
종속 변수	노동시간	유급노동 무급노동	고용된 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농림어업무급가족종사, 구직활동 등
	가사노동시간	가정관리, 집안정리, 관련 물품구입 등	
	가족돌봄시간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가족 돌봄	
	여가시간	능동적여가 수동적여가	교제, 학습, 종교, 문화행사, 스포츠, 사회참여 대중매체, 담배, 아무것도 안하고 쉬기
통제 변수	연령	18~29세, 30~39세, 40~49세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0, 중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 졸업 이하=2,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3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이혼·미혼·사별)=0	
	가구원 수	가구내 10세 이상 구성원의 수 (명)	
	가구주 여부	가구주=1, 비가구주=0	
	미취학자녀 수	가구내 미취학자녀의 수	
	초중고자녀유무	초중고생 자녀 있음=1, 없음=0	
	가구소득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5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거주지역 유형	비농가=0, 농가=1	
	지역	서울경기=0, 광역시=1, 기타=2	
	주거유형	자가=0, 전세=1, 월세=2, 무상=3	
	요일유형	주말=0, 평일=1	

4.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표 3〉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중 40-49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은 30-39세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하여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의 결혼-출산-육아생애주기와 일치한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70%를 차지했으며, 교육수준은 미취학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에 비해 중졸이하의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0세 이상 가구원의 수는 2004년과 2009년 모두 평균 3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10세 미만 자녀의 수를 고려할 때 전체 가구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미취학자녀의 수는 2004년 평균 1.12명 2009년 평균 1.33명으로 2009년에 다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유형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이 농가인 경우가 많았다. 주거유형은 전체 여성의 경우 자가, 전세, 월세, 무상주택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자가인 비중이 높았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에 원가구(natal family)에서 독립하지 않은 미혼여성과 취학자녀만 있는 중장년 여성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이 월 가구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인 가구에 속하며, 2004년에 비해 2009년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과 2009년 사이 물가상승에 따른 착시효과일 수 있는데, 화폐가치가 하락해 전체적인 소득분포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연구대상의 특성(단위: N, %)

구분		2004년			2009년		
		미취학자녀 없음	미취학자녀 있음	전체	미취학자 녀 없음	미취학자녀 있음	전체
연령	18세~19세	808 (5.65)	2 (0.05)	810 (4.33)	485 (5.68)	1 (0.04)	486 (4.45)
	20세~29세	3,822 (26.72)	964 (21.92)	4,786 (25.59)	2,081 (24.39)	466 (19.49)	2,547 (23.31)
	30세~39세	3,290 (23.00)	3,174 (72.17)	6,464 (34.56)	1,990 (23.33)	1,723 (72.01)	3,713 (33.99)
	40세~49세	6,384 (44.63)	258 (5.87)	6,642 (35.51)	3,976 (46.60)	202 (8.45)	4,178 (38.25)

혼인상태	유배우자	8,799 (61.48)	4,326 (98.51)	13,124 (70.18)	5,237 (61.38)	2,364 (98.80)	7,601 (69.58)
교육수준	중졸이하	3,017 (21.08)	198 (4.50)	3,215 (17.19)	989 (11.59)	60 (2.51)	1,049 (9.60)
	고졸	7,562 (52.84)	2,430 (55.35)	9,993 (53.43)	4,650 (54.50)	1,143 (47.79)	5,793 (53.03)
	전문대졸	1,490 (10.41)	747 (17.02)	2,237 (11.96)	1,266 (14.84)	568 (23.75)	1,834 (16.79)
	4년제대졸	2,242 (15.67)	1,016 (23.13)	3,257 (17.42)	1,627 (19.07)	621 (25.94)	2,248 (20.58)
10세 이상 가구원수	평균(S.E.)	3.62 (0.01)	2.66 (0.02)	3.40 (0.01)	3.28 (0.01)	2.44 (0.02)	3.10 (0.01)
미취학 자녀 수	평균(S.E.)	-	1.12 (0.01)	-	-	1.33 (0.01)	-
농가여부	농가	824 (5.76)	154 (3.50)	978 (5.23)	301 (3.53)	50 (2.10)	351 (3.21)
주거유형	자가	9,210 (64.36)	2,172 (49.46)	11,382 (60.86)	5,562 (65.19)	1,330 (55.59)	6,891 (63.09)
	전세	2,624 (18.33)	1,381 (31.44)	4,004 (21.41)	1,720 (20.16)	677 (28.31)	2,398 (21.95)
	월세	2,005 (14.01)	608 (13.84)	2,613 (13.97)	1,087 (12.74)	290 (12.11)	1,377 (12.60)
	무상주택	472 (3.30)	231 (5.26)	703 (3.76)	162 (1.90)	96 (4.00)	258 (2.36)
가구소득	~100만원	3,929 (27.46)	672 (15.30)	4,601 (24.60)	1,784 (20.92)	230 (9.62)	2,015 (18.44)
	~250만원	5,911 (41.31)	2,482 (56.52)	8,393 (44.88)	2,705 (31.70)	1,095 (45.78)	3,800 (34.79)
	~350만원	2,408 (16.83)	791 (18.01)	3,199 (17.10)	1,775 (20.81)	630 (26.33)	2,405 (22.02)
	~500만원	1,306 (9.12)	342 (7.79)	1,648 (8.81)	1,258 (14.74)	295 (12.33)	1,553 (14.21)
	~500만원 이상	757 (5.29)	105 (2.39)	862 (4.61)	1,009 (11.83)	142 (5.94)	1,152 (10.54)
계		14,311 (76.52)	4,391 (23.48)	18,702 (100.00)	8,531 (78.10)	2,393 (21.90)	10,924 (100.00)

2) 단순 삼중차이 분석 결과

단순 삼중차이는 미취학자녀 유무와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적요인 등으로 인한 2004년과 2009년 사이의 추세(secular trends)를 통제한 상태에서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표 4>는 모형1(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전체 여성)에 대한 단순 삼중차이 분석 결과이다.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에 대한 단순 삼중차이 모두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의 2004년과 2009

년 집단내시간 변화와 반대의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노동시간의 경우 집단내 시간차이를 살펴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은 2004년에 비해 2009년 노동시간이 감소하였고(-1.7분, -15.5분),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은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6.0분, 6.8분). 이를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과 일반가구 여성으로 구분하여 삼중차이 분석을 한 결과, 2004년에 비해 2009년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이 14.6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모형1: 18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의 평균 생활시간 단순 삼중차이 분석결과(단위: 분)

집단구분		2004년	2009년	집단내 시간차이
미취학자녀 있음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	125.97	124.29	-1.68
	일반가구 여성	122.04	106.56	-15.48
	집단간 차이	3.94	17.73	
	이중차이			13.8
노동 미취학자녀 없음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	241.52	247.52	6.00
	일반가구 여성	184.56	191.40	6.83
	집단간 차이	56.96	56.12	
	이중차이			-0.83
삼중차이				14.63
미취학자녀 있음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	178.64	193.22	14.58
	일반가구 여성	178.49	208.22	29.73
	집단간 차이	0.15	-15.00	
	이중차이			-15.15
돌봄 미취학자녀 없음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	21.51	22.84	1.32
	일반가구 여성	26.37	32.55	6.18
	집단간 차이	-4.86	-9.71	
	이중차이			-4.85
삼중차이				-10.3
미취학자녀 있음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	204.44	193.50	-10.94
	일반가구 여성	202.06	198.67	-3.39
	집단간 차이	2.38	-5.16	
	이중차이			-7.55
가사 미취학자녀 없음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	144.35	132.38	-11.97
	일반가구 여성	152.25	150.42	-1.84
	집단간 차이	-7.90	-18.03	
	이중차이			-10.13
삼중차이				2.58
미취학자녀 있음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	232.01	198.34	-33.67
	일반가구 여성	231.86	195.68	-36.18
	집단간 차이	0.15	2.65	
	이중차이			2.50
여가 미취학자녀 없음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	297.79	274.66	-23.13
	일반가구 여성	342.18	309.92	-32.26
	집단간 차이	-44.39	-35.26	
	이중차이			9.13
삼중차이				-6.63

둘째, 돌봄시간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과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 모두 2004년에 비해 2009년 돌봄시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1.3분~29.7분). 하지만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와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삼중차이를 분석한 결과, 2004년에 비해 2009년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 소득 가구 여성의 돌봄시간이 10.3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사시간의 집단내 시간차이를 살펴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과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 모두 2004년에 비해 2009년 가사시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1.8분~-12.0분). 삼중차이 분석을 한 결과 2004년에 비해 2009년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가사시간이 2.6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과 미취학자녀가 없는 여성 모두 2004년에 비해 2009년 여가시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23.1.~36.2). 삼중차이 분석결과, 2004년에 비해 2009년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여가시간이 6.6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미취학 및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단순 삼중차이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2004년과 2009년의 집단내 시간차이를 중심으로 요약해 제시하였다. 모형1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행위별 시간 변화의 방향은 노동, 돌봄시간은 동일했으나 가사와 여가시간은 그 방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비해 2009년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17.6분 증가했으며, 돌봄시간은 14.7분 감소해 활동별로 모형1의 결과(노동: 14.63분 증가, 돌봄: 10.3분 감소)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한 시간의 절대값이 다소 커졌다. 반면에 모형1에서 증가한 가사시간은 모형2에서는 17.4분 감소했고, 모형1에서 감소한 여가시간은 모형2에서 4.8분 증가했다.⁹⁾

<표 5> 모형2: 미취학·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평균생활시간 단순 삼중차이 분석결과(단위: 분)

	미취학자녀 여성 집단내 시간차이			취학자녀 여성 집단내 시간차이			삼중차이
	중하위소득	일반	이중차이	중하위소득	일반	이중차이	
노동	-1.68	-15.48	13.80	16.25	20.07	-3.83	17.62
돌봄	14.58	29.73	-15.15	7.17	7.65	-0.48	-14.67
가사	-10.94	-3.39	-7.55	-15.57	-25.41	9.84	-17.39
여가	-33.67	-36.18	2.50	-30.42	-28.09	-2.33	4.84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 변화에 있어서 노동시간은 (+), 돌봄시간은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미취학자녀 양육부담을 낮춘다는 보육료 지원 확대의 목표에 부합한다. 하지만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집단내 시간차이에서 알 수 있듯,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절대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9) 각 집단별 전체 여성 중 지난 1주일간 수입이 되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여성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에 대해 단순삼중차이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고용률은 2004년에 비해 2009년 1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표 5>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3) 삼중차이 추정을 적용한 토빗회귀분석 결과

앞에서 살펴본 단순 삼중차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간 차이가 미취학자녀 여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추세의 영향과 더불어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의 생활시간 배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삼중차이 추정을 적용한 토빗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을 처치집단으로 한 모형1의 토빗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종속변수 잔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ho(\rho)$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SUR을 적용한 토빗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을 반영하는 미취학자녀 유무,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변수에 대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노동시간 39.43, 돌봄시간 -16.18, 가사시간 -6.42, 여가시간 2.73이었으며,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회귀계수만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돌봄시간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회귀계수는 〈표 4〉의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단순 삼중차이 결과인 14.63과 -10.3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 가구내 지위,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농가여부, 거주지역, 주거유형, 평일여부를 통제할 경우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 여성의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가사시간과 여가시간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단순 삼중차이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사시간은 (+)에서 (-)로, 여가시간은 (-)에서 (+)로 그 방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과 앞서 열거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이 서로 상충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가사시간과 여가시간은 노동시간과 돌봄시간과 달리 보육료 지원 확대보다는 여성이 위치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 집단 및 시기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이 보다 명확해진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노동과 여가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고 돌봄과 가사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았으며(변수 A의 회귀계수),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의 차이에서는 방향은 동일하였지만 가사와 여가시간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시기).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2004년과 2009년 사이의 추세 변화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을 늘리고 돌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 변수를 포함한 세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노동시간 (+), 돌봄시간 (-)로 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 이로부터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간 감소와 돌봄시간 증가라는 추세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음을 유

추할 수 있다.

〈표 6〉 모형1: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에 대한 삼중차이 토빗회귀분석 결과

구분	노동	돌봄	가사	여가
연령 18-29세	-93.50*** (6.949)	2.42 (2.937)	-34.05*** (2.202)	63.03*** (3.375)
(30-39세)				
40-49세	17.40** (5.904)	-10.09*** (1.783)	28.93*** (2.014)	-7.98** (2.808)
가구주 (비가구주)	88.04*** (6.840)	-7.09** (2.329)	-1.92 (2.230)	-44.17*** (3.619)
가구원수	21.65*** (1.788)	-5.17*** (.682)	-3.96*** (.592)	-5.91*** (.921)
초중고자녀있음(없음)	-51.17*** (5.147)	90.37*** (1.695)	42.20*** (1.735)	7.17** (2.377)
배우자있음(없음)	-29.70*** (7.113)	92.98*** (3.033)	108.89*** (2.335)	-73.61*** (3.613)
교육 수준 중졸	-26.71* (11.810)	-2.64 (4.537)	-10.09* (4.328)	36.87*** (6.221)
수준 고졸	-18.13# (10.643)	9.87* (4.144)	-2.78 (3.978)	14.97** (5.409)
(초졸) 대졸이상	50.98*** (11.148)	17.24*** (4.305)	-14.74*** (4.111)	-24.62*** (5.690)
농가(비농가)	82.07*** (9.280)	-2.20 (3.958)	13.18*** (3.515)	-44.43*** (5.114)
지역 광역시	-5.98 (5.482)	-0.55 (1.859)	5.38** (1.729)	5.79* (2.778)
(서울 경기)				
기타	29.67*** (5.553)	-4.53* (1.927)	1.87 (1.769)	6.30* (2.791)
주거 유형 전세	3.97 (5.501)	7.12*** (1.918)	0.83 (1.732)	-3.23 (2.698)
월세	38.99*** (6.697)	-4.36# (2.424)	0.91 (2.084)	-16.57*** (3.505)
(자가)				
무상	14.33 (12.369)	3.33 (4.506)	13.22** (3.818)	-8.63 (6.301)
평일 (주말)	159.95*** (4.050)	13.73*** (1.475)	-25.91*** (1.315)	-41.24*** (1.976)
시기	21.66** (8.178)	3.70# (2.244)	-8.04** (2.565)	-26.99*** (4.323)
A(미취학자녀)				
보육 B(중하위소득)	-71.60*** (12.371)	174.66*** (4.709)	22.13*** (4.033)	-70.30*** (5.334)
지원				
A*시기	-50.98** (17.326)	27.17*** (6.568)	3.51 (5.402)	-11.54 (7.084)
영향				
B*시기	-13.05 (10.313)	-2.37 (2.977)	-1.69 (3.272)	3.01 (5.475)
A*B	-60.63*** (13.916)	12.25* (5.324)	10.26* (4.478)	26.05*** (6.029)
A*B*시기	39.43# (21.879)	-16.18# (8.340)	-6.42 (6.836)	2.73 (9.076)
constant	-109.20*** (16.050)	-131.95*** (6.067)	96.56*** (5.483)	420.09*** (8.279)
Sigma	319.67*** (1.492)	101.37*** (.997)	107.04*** (.569)	169.31*** (.743)
센서링 된 사례	15,636	14,157	3,161	245
Log pseudo Likelihood	-303038.08			
사례 수	29,626			

주: 괄호안은 Robust SE임.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한편, 통제변수의 영향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자영, 2010; 최성은, 2011; 현재은·권혁주, 2013; Schøne, 2004; Kimmel and Connelly, 2007). 주요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의 경우 30대에 비해 10대 후반 및 20대는 노동, 가사에 더 적은 시간을, 여가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40대는 노동과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돌봄과 여가에는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의 경우 결혼 후 출산과 영유아 자녀의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다가 40대에 자녀가 성장한 이후 다시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 노동

에 적은 시간을 투여하고, 돌봄·가사·여가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적고, 돌봄과 가사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노동을 하기 보다는 가족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상인 여성은 초졸이하인 여성에 비해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에 따라 가사·여가에는 더 적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의중임금을 반영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동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져서 가사나 여가보다는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졸이상인 여성은 초졸이하인 여성에 비해 돌봄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돌봄시간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윤자영, 2010; Hill and Stafford, 1974; Guryan et al., 2008). 가구소득 수준을 보완하기 위한 통제변수인 주거유형의 경우 자가가구 여성과 전세 및 무상주택 가구 여성의 차이는 돌봄시간(전세) 및 가사시간(무상주택)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 여성에 비해 월세가구 여성이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무상주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무상주택 가구에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보장 수급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급여수준이 차감되어 근로유인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구인회 외, 2010), 저소득으로 인한 노동시간 증가 경향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가와 월세 가구 여성의 차이는 명확했다. 자가가구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월세가구 여성은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고 돌봄과 여가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임기 여성 전체의 생활시간 배분 경향과 비교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은 구조적으로 이질적일 수 있으므로 분석대상을 미취학 및 취학 자녀가 없는 여성을 제외한 여성(미취학 혹은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만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표 7〉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중 미취학자녀와 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2의 토빗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2 역시 모형적합도와 $Rho(\rho)$ 값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을 보여주는 미취학자녀 유무,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노동시간 44.72, 돌봄시간 -15.52, 가사시간 -20.56, 여가시간 8.29였으며, 여가시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을 증대시키고, 돌봄시간과 가사시간을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모형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가사시간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미취학 및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과 돌봄시간 뿐만 아니라 가사시간의 배분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표 7〉 모형2: 미취학 및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삼중차이 토빗회귀분석 결과

구분	노동	돌봄	가사	여가
시기	40.52** (13.266)	4.58# (2.618)	-25.93*** (4.499)	-30.26*** (5.985)
A(미취학자녀)	11.26 (15.660)	75.59*** (4.555)	-17.95*** (5.149)	-57.64*** (6.450)
보육 B(중하위소득)	106.98*** (11.933)	-7.64** (2.261)	-23.65*** (4.197)	-38.94*** (5.474)
지원 A*시기	-65.37** (20.691)	21.26** (6.262)	21.60** (6.517)	-9.50 (8.134)
영향 B*시기	-17.58 (17.632)	2.06 (3.393)	13.39* (6.030)	-3.97 (8.068)
A*B	-89.77*** (17.054)	3.83 (5.001)	28.51*** (5.627)	37.22*** (7.105)
A*B*시기	44.72# (26.630)	-15.52# (7.920)	-20.56* (8.442)	8.29 (10.721)
constant	-205.14*** (34.898)	88.23*** (8.853)	193.28*** (12.126)	348.30*** (16.336)
Sigma	309.18*** (2.115)	97.25*** (.959)	107.01*** (.733)	137.83*** (.963)
센서링 된 사례	8,068	106	132	123
Log pseudo Likelihood	-157416.97			
사례 수	13,383			

주: 1) 괄호안은 Robust SE임.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2) 모형1과 동일하게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보육지원 영향과 관련된 변수의 결과만 제시하였음.

집단, 집단 및 시기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과 취학 자녀만 있는 여성의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자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미취학 및 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 취학자녀만 둔 여성과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학자녀만 있는 여성에 비해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고 가사와 여가에 투여하는 시간은 적었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기존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윤자영, 2010; Kimmel and Connelly, 2007). 미취학자녀 유무와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돌봄시간은 미취학자녀 유무 회귀계수와 유사하게 (+)로 유지된 반면, 노동시간은 (+)에서 (-)로 방향이 바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졌으며, 가사시간은 (-)에서 (+)로 방향이 바뀌고 여가시간은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형1과 마찬가지로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 변수를 추가한 상호작용항은 노동시간 (+), 돌봄시간 (-), 가사시간 (-)로 다시 방향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전체 여성의 노동시간 감소, 돌봄 및 가사시간 증가라는 경향이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 집단에게 그 추세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즉,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을 증대시키고 돌봄시간과 가사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¹⁰⁾.

10) 한편, 연령대별로 여성이 처하는 노동시장 여건이 다를 수 있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다수가 30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정책의 연령대별 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분석방법의 제약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며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통계변수의 영향은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초중고생 자녀 유무와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모형1과 유사했다. 모형1에서는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고, 돌봄, 가사, 여가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았다. 반면 모형2에서는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비해 노동, 가사, 여가시간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고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미취학 및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이 분석대상이므로 초중고생 자녀가 없는 여성은 미취학자녀만 있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모형2에서 초중고생자녀 유무의 회귀계수는 자녀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돌봄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에 대해 교육수준 별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모형1과 달리 모형2에서는 초졸이하 여성과 대졸이상 여성의 돌봄시간과 가사시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졸이상 여성은 초졸이하 여성에 비해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이 더 많고 가사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었다. 이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 혹은 임금률의 증가가 가사시간을 감소시키지만 돌봄시간은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5. 결론

자녀를 둔 여성은 제한성과 연속성을 갖는 24시간의 시간적 제약 하에서 주요 활동을 배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구조화한다. 돌봄의 사회화에 기반을 둔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를 돌보는데 할애하던 시간을 유급노동, 가사노동 또는 여가활동에 재배분해 자신의 일상을 변화시킨다. 본 연구는 2004년과 2009년 사이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주목하고,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이후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단순 삼중차이와 삼중차이추정을 적용한 SUR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라는 변수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분석대상을 미취학자녀 및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한정했을 때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돌봄시간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가사시간도 감소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사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간 감소와 돌봄 및 가사시간 증가 경향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과 돌봄시간 변화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UR 토빗분석에서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를 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미취학자녀 유무, 중하위소득 가구 여부,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의 상호작용항)는 유의수준이 .10으로 매우 낮았다. 요컨대 미취학자녀를 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은 비록 유의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보육료 지원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 즉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돌봄시간과 가사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크게 세 가지의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보육료 지원 확대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함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해도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 증가와 돌봄 및 가사시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료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취학자녀가 있는 전체 여성의 2004년과 2009년 시간배분 변화는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중하위소득 가구 중심의 보육료 지원 확대만으로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양육부담을 낮출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보육료 지원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미취학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에 대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 무상보육 정책의 기초는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 정책은 보육료 지원 중심의 재정 지원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 공급되는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은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아동 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특별활동 추가비용 등이 이런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공급 구조 및 품질관리를 내실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둘째,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에 집중된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고용정책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 돌봄시간, 가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료 지원의 효과가 본래 정책 목표와 부합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는 이유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주기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모성보호제도는 소수의 정규직,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 에 한정하여 이용가능하고, 실제 이용률도 낮은 수준이다(도남희 외, 2012). 그러므로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인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득향상 전략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소득이전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 하였으나, 보육료 지원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해당 가구에 직접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공적이전이 많은 경우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이라는 서비스 확대가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하락을 예방할 수 있는 소득보장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생산의 주된 축인 근로가능 연령 가족의 주된 빈곤 위험요인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OECD, 2011), 보육서비스는 근로가능 연령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정책으로

가능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해 근로무능력 신규가구원이 늘어나 가구의 필요지출 수준이 높아지고, 가구의 소득원인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단될 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감소시켜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취약계층에 한정된 현금이전 중심의 소득보장제도를 넘어서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서비스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생활시간자료는 본 연구에서 처치 집단 기준으로 사용한 가구소득을 서열변수로 측정하므로 추정에 편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시간은 양육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될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돌봄이라는 행위는 주행동뿐만 아니라 동시행동의 성격을 갖는다. 설거지나 책을 읽으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동 시간을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을 추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돌봄시간의 변화는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를 이용해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엄밀하게 측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인회·임세희·문해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 44(1), 123-148.
- 김대일, 2008,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교육”, 『노동경제논집』, 31(2): 73-102.
- 김순미·이경희·성지미, 2000, “기혼 여성의 취업과 자녀보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자녀보육의 형태와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3: 219-240.
- 김정호·홍석철, 2013, “보육료 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효과 분석”, 현진권 편,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43-75.
- 김진욱·최영준, 2012, “일-가족 시간배분에 따른 가구유형과 변화-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4(2): 31-54.
- 김현숙·원종학, 2004, 『여성 노동공급과 조세, 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4-04, 한국조세연구원.
- 도남희, 2013, 『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현황과 과제』, 이슈페이퍼 2013-08,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이정원·김문정, 2012,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2-24, 육아정책연구소.
- 박미희·변금선, 2013, “생애과정 전환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3): 29-52.
- 서병선·임찬영, 1994, “가계생산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국제경제연구』, 10(1): 141-167.
- 윤자영, 2010, “모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연구』, 33(2): 27-52.

- 주보혜, 2010,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은, 2011, “보육료지원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85-105.
- 황수경, 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 황윤재·최강식, 1999,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계량경제학보』, 10(1): 35-69.
- 현재은·권혁주, 2013,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여성의 돌봄시간 분석”, 『한국행정학보』, 47(1): 269-293.
- Anderson, P. M., and Levine, P. B., 1999, *Child Care and Mother's Employment Decis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7058.
- Baum, C. L., 2002, “A dynamic analysis of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 on the work decisions of low-income mothers with infants”, *Demography*, 39(1): 139-164.
- Baker, M., Gruber, J., and Kevin M., 2005, *Universal Child Care, Material Labor Supply, and Family Well-Being*, NBER Working Papers 11832.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Blau, D. M., and Robinson, P. K., 1988, “Child care cost and family labor suppl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70(3): 374-38.
- Connelly, R., 1992,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74: 83-90.
- Esping-Anderse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Press.
- Foster, G., and Kalenkoski, C. M., 2013, “Tobit or OLS? An empirical evaluation under different diary window lengths”, *Applied Economics*, 45(20): 2994-3010.
- Gauthier, A. H., and Smeeding, T., 2003, “Time use at older ages: Cross-national differences”, *Research on Aging*, 25(3): 247-274.
- Gershuny, J., and Sullivan, O., 1998, “The sociological uses of time-use diary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4(1): 69-85.
- Giullari, S., and Lewis, J., 2005, “The adult worker model family, gender equality and care”,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Programme Paper*, 19.
- Guryan, J., Hurst, E., and Kearney, M. S., 2008, “Parental education parental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3): 23-46.
- Grustasson, S., and Stafford F., 1992, “Child care subsidies and labor supply in Swede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1): 204-230.
- Heckman, J., 1974, “Effects of child-care programs on women's work effort”, 491-524, in *Economics of the Family*, edited by Schultz, 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ll, R., and Stafford, F., 1974, “The allocation of time to preschool children and educational opportuni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 9(3): 323-241.
- Kimmel, J., and Connelly, R., 2007, “Mothers' time choices caregiving, leisure, home Production, and paid work”,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3): 643-681.
- Kreyenfeld, M., and Hank, K., 2000., “Does the availability of child care influence the employment of mothers?: Findings from western German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9(4): 317-337.

- Lefebvre, P., and Merrigan, P., 2008, "Child care policy and the labor supply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 natural experiment from Canad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6(3): 519-548.
- Lippe, T., Ruiter, J., Ruiter, E., and Raub W., 2011, "Persistent inequalities in time use between men and women: A detailed look at the Influence of economic circumstances, policies, and cultur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2): 164-179.
- Michalopoulos, C., Robinson, P. K., and Garfinkle, I., 1992, "A structure model of labor supply and child care demand",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 27(1): 166-203.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 Ringen, S., 2007, *What Democracy Is For?*,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öne, P., 2004, "Labour supply effects of a cash-for-care subsid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4): 703-727.
- Stewart, J., 2013, "Tobit or not Tobit?"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8(3): 263-290.

Th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on Time Allocation of Women

-Focusing on Low-income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Byun, Geumsun

(Seoul National University)

Heo, Yong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on time allocation of women, particularly low-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For the purpose, the study adopts seemingly unrelated tobit and analyses data from the 2004 and 2009 Time Us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irst of al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olicy changes in childcare subsidy affect time allocation of low-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which increases paid-work whereas decreases caregiving and housework in a daily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s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childcare subsidy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reducing women's burden of caregiving. Yet the study has a couple of limitations- the only marginally significant impact in several variables, little effect on time allocation of all women-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Neverthel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employment policies for women, particularly for mothers, and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should be improved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Key words: childcare subsidy, childcare service, time allocation of women

[논문 접수일 : 14. 02. 05, 심사일 : 14. 02. 28, 게재 확정일 : 14. 03. 26]

허용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박사후연구원. 최근 논문으로는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in Korea and Singapore”(University of York, unpublished PhD thesis, 2012),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복지국가: 고층동 정부까지를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40(3), 2013)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 발달사, 주택정책 비교연구, 사회서비스와 복지국가 등임.
E-mail: heoyc1@gmail.com

현경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중도장애,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 복잡성과 심리적 안녕: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의 매개효과”(『한국사회복지학』, 62(4), 2010),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 부인의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 연구”(『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2012, 공저),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의 안녕: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 한 자기긍정성의 매개효과”(『한국사회복지학』, 64(2), 2012)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사회심리를 응용한 임상실천치식 개발, 다문화가족복지, 사회문화적 소수자의 역량강화임.
E-mail: swwhyun22@hanmail.net

남일성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논문으로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Texas Revised Inventory of Grief”(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93(1), 65-73.), “Is student debt jeopardizing the long-term financial health of U.S. households?”(Review of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95(5), 405-424.)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건강, 건강불평등, 사별, 복잡성 비애감, 경제적 곤란 등임.
E-mail: ilsungn@hallym.ac.kr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장애여성들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결혼불안정성을 중심으로”(『한국장애인복지학』, 20, 2013), “형제자매들에게 발생한 아동학대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청소년학연구』, 18(4), 2011),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19(1), 2011)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 등임.
E-mail: mspark@sangji.ac.kr

이재경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주류광고가 비음주경험 청소년의 음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2012), “문제음주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경향 메타분석”(『한국알코올과학회지』, 14(2), 2013),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 (중독포럼,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정신건강(알코올 및 중독), 아동·청소년복지임.
E-mail: good-man0424@daum.net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논문으로 “김만두 비평: 그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5(4)), 저술로는 『얕은 욕망과 깊은 열등감: 범죄에 관한 인문학적 이해』, (양서원, 2012) 등이 있음. 현재 “한국 사회복지실천 정체성 비평”과 『한국 사회복지학 통설』을 준비하고 있음.
E-mail : okchai@jnu.ac.kr

〈기고자 소개〉

권현정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고찰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시장화분석”(『사회복지정책』, 41(1),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효과가 생활만족도와 가족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복지학』, 63(4), 2011).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변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정책』, 38(3), 2011).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회복지정책분석임.

E-mail: martha8291@hanmail.net

박연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비판사회정책』, 39(2), 2013, 공저) 주요관심분야는 사회복지법제연구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학대, 폭력관련 사회복지분야의 재판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연구임.

E-mail: yeonjulaw@naver.com

박봉길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독거노인의 경제적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고독감의 조절효과”(『노인복지연구』, 63, 2014), “중년기 위기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적 지지의 조절효과”(『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2013, 공저),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한국노년학』, 28(4), 2008),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9,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자살예방, 재가복지임.

E-mail: pbgsw@naver.com

송인석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욕구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2(3), 2010, 공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농협문화복지재단, 2010, 공저), 『사회복지와 탄력성(Resiliency)』, (나눔의집, 2004, 공동번역)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지역복지, 사회복지행정임.

E-mail: siswelfare@hanail.net

이지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 “Factors Influencing Help-Seeking Behavior among Battered Korean Women in Intimate Relationships”(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5), 2011 공저).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매개효과”(『한국사회복지학』, 63(4), 2011, 공저).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위험음주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2(4), 2010, 공저). 주요 관심분야는 청소년복지,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임.

E-mail: hifivejh@hanmail.net

변금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주요 논문으로는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정책』, 40(4), 2013), “생애과정 전환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5(3), 2013, 공저),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4(3), 2012)가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근로빈곤,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 생활시간연구임.

E-mail: tgoldsun@naver.com